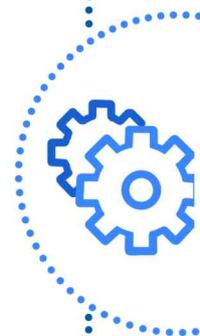




# 목 차

	<b>빅데이터 동향</b> .....	32
<b>정책</b>	- 26만 명 암환자 빅데이터 확대 개방 .....	32
	- “국가 차원 데이터 관리 수준 제고” 데이터 질서 체계 필요성 .....	33
	- “시민 75%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 반대” .....	34
	- 구조활동 기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익수사고 위험지도 발표 .....	35
	- 무보, 481만개 국외기업 빅데이터로 국내기업 수출 돕는다 .....	36
	- 국립공원공단, 통계 정보 분석을 통한 사전예방 안전관리 추진 .....	37
	- 광주시, 데이터 분석으로 그늘막 우선 설치 지역 선정 .....	38
	- 건강진단에 운동·식단 제시...서울시, ‘손목닥터 9988’에 AI 입힌다 .....	39
<b>기업</b>	- “전방 150m 야생동물 출현”...빅데이터·기술로 로드킬 막는다 .....	40
	- LIG넥스원, 美 필란티어와 MOU...“빅데이터 기반 무기체계 개발” .....	41



## 26만 명 암환자 빅데이터 확대 개방

-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한국보건 의료정보원은 '24년 8월 1일(목)부터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개선하여 연구자들에게 제공한다고 밝힘
-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암 빅데이터로 암 환자의 등록, 검진, 의료이용, 사망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 처리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암 환자의 데이터 종류별 자료제공기관 및 수집항목 수>

자료제공기관	데이터 종류	수집항목 수
중앙암등록본부	암 등록자료	7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 및 보험료, 일반건강검진, 암 검진(유방·대장·간·위·자궁경부암)	44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명세서 일반내역, 진료내역, 수진자 상병내역, 원외처방 상세내역	67
통계청	사망자료(사망일, 사망원인)	3
질병관리청	확진자, 예방접종	9

- 코로나19 확진 및 예방접종 정보가 추가되고 기존 '12~'19년에서 '20년까지 데이터 확대·현행화 되는 등 데이터의 기간과 종류가 확대
- 총 226만 명 규모의 가명처리된 데이터가 연구자에게 제공됨

<암 공공 라이브러리 전주기 이력 관리 과정>



- 데이터 활용을 원하는 연구자는 K-CURE 포털(K-cure.mohw.go.kr)에서 신청해 활용 가능
- 연구자는 연구 필요성과 가명처리의 적절성 등에 대해 데이터제공심의위원회, 데이터반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 보건 의료데이터의 과학적, 학술적 목적을 위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보안을 강화한 폐쇄분석환경을 갖춘 안심활용센터\*에서 활용 가능

\* 한국보건 의료정보원, 국립암센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남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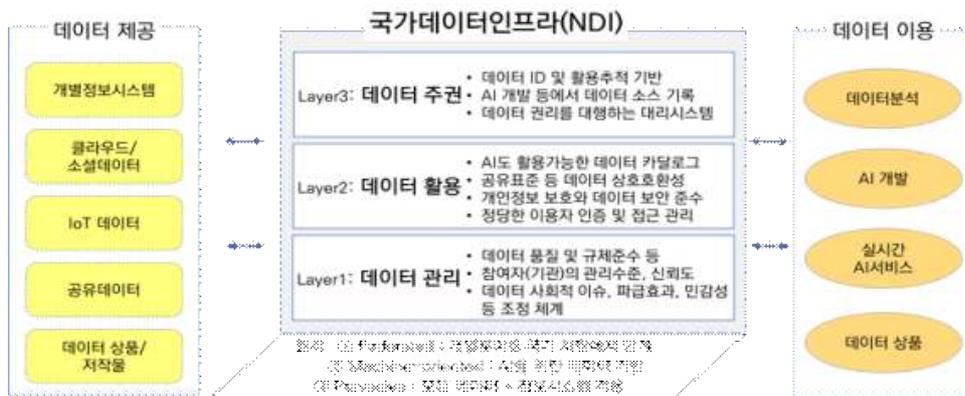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08.01.) 226만 명 암환자 빅데이터 확대 개방



## “국가 차원 데이터 관리 수준 제고” 데이터 질서 체계 필요성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국가 데이터 인프라’ 전략 이슈페이퍼를 발간하면서 국내 데이터 제공 플랫폼 산재로 인해 데이터 검색과 수집의 비효율을 지적
  - 데이터 결합 시 별도 가공 처리 과정이 필요한데 분야별, 산업별 데이터 표준이 상이해 대량 데이터 전처리 및 가공에 드는 업무부담으로 대부분 기관은 미가공 데이터를 활용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애로사항을 겪고 있음
-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공공·민간·산업 등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정책을 위해 개별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오히려 단절된 국가 데이터 생태계를 형성
  - (수집·생산)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가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공통 기준이 없고 데이터와 참여자에 대한 신뢰·인증 체계가 없음
  - (제공·공유)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계할 수 있으나 각각 형식과 항목이 상이
  - (거래·활용) 무형 복제가 가능한 데이터 특성에 적합한 데이터 유통·거래 이력 및 주권 관리 체계가 부재
- 따라서 국가 데이터 공통 카탈로그를 정의하고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해 국제 표준과 연계하는 등 개별 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생태계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

<국가데이터인프라 기본 구조>



- 국가의 모든 데이터에 대한 통합 검색과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산재된 데이터 소재 정보를 표준 카탈로그 기반으로 연계·공유해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데이터를 검색·유통·활용하는 기반을 마련
- 현행 통합 데이터지도를 국가 데이터 통합 창구로 고도화 및 전환하고 연계 대상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함
- 민간과 공공 간 상호운용성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간 공통 연계, 유통 체계 확립 필요성 제기

출처 : 데일리안(2024.08.12.) “국가 차원 데이터 관리 수준 제고”...AI 시대 데이터 질서 체계 필요성



## “시민 75%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 반대”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민간 대상 빅데이터 제공 확대, 저위험 가명정보 외부 반출 허용,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한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등을 포함
  - 민간보험사들이 최근 3년 동안 보험 상품 연구·개발과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등을 목적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을 요구해왔는데,
  -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 기조와 맞물려 규제 개선과 활용 범위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난 8월 8일에는 금융당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정보공개 절차 합리화 검토’를 안건으로 보험개혁회의가 개최되기도 함
- 시민단체 등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4명 중 3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 빅데이터가 민간에 공개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대하는 이유로 ‘민간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국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49.3%)’, ‘개인의 의료·소득·재산정보 등 민감 정보가 이용될 위험이 높아서(31.4%)’ 등을 꼽음
  - 이들은 진료·건강 정보뿐 아니라 소득·재산 정보까지 담겨있는 건보 빅데이터 개방은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하며
  - 민간보험사들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구조로 보험 상품을 설계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보험금 지급 거부, 가입 차등화 등으로 경제적 약자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 주장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저지 공동행동〉 단체의 피켓팅



- 정부는 건보 빅데이터가 신약 개발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돼 국민의 건강·안전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국민적 신뢰를 얻어 안전하게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출처 : 세계일보(2024.08.19.) “시민 75%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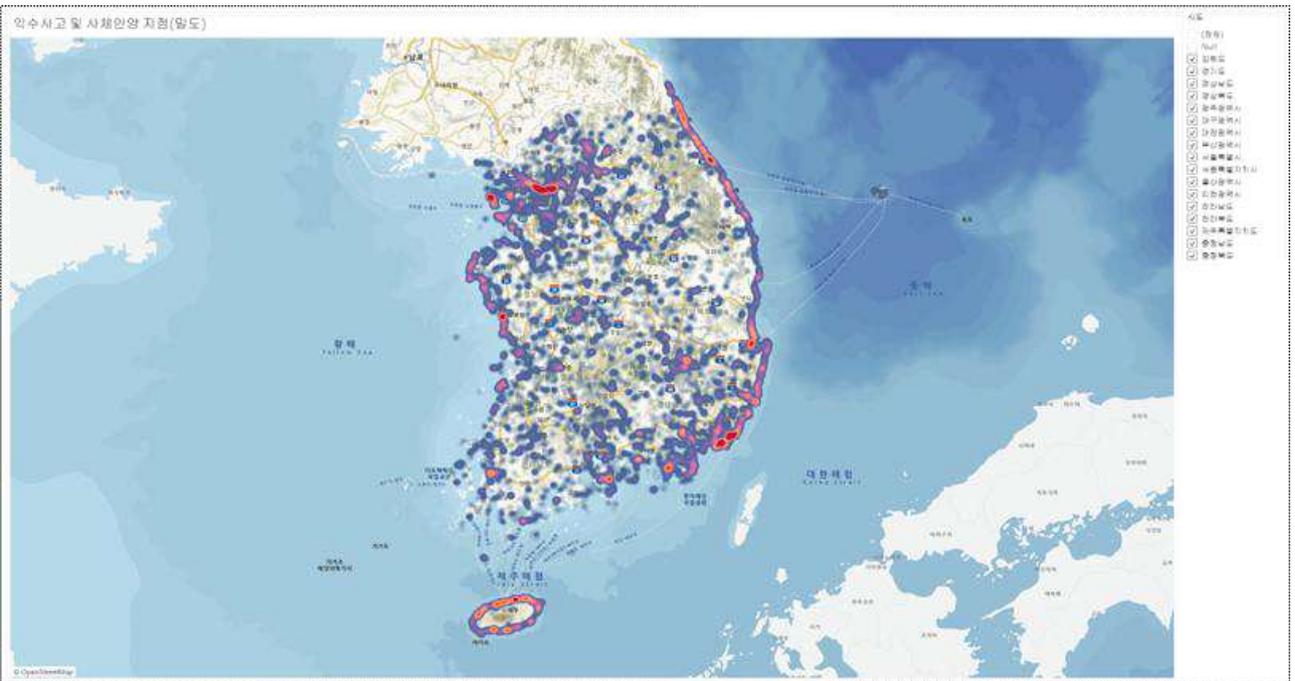
쿠키뉴스(2024.08.20.)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시장 확대... “의료민영화 가속” vs “국민건강 보장”



## 구조활동 기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익수사고 위험지도 발표

- 소방청이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www.bigdata-119.kr](http://www.bigdata-119.kr))에 「전국 익수사고 위험지도」 공개
  -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간의 전국 구조활동 데이터를 기술 통계 분석(EDA), 시계열 분석, 공간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해 익수사고 다발 지역과 시기, 원인, 장소, 기상특보 영향 등을 시각화

<익수사고 위험지도>



-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익수사고는 8월의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3시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원인은 물놀이, 실족, 어패류 채취, 낚시, 빙상놀이 순이고 사고 발생 장소는 바다, 하천, 강, 다리(교각), 고수부지, 계곡 순으로 많았음
- 특히, 2020년 이후부터는 해마다 폭염과 태풍 등의 기상 특보로 인한 익수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는 부산, 강원, 경북, 경남, 제주 등의 지역에서 익수사고가 많았으며, 부산·경북·경남 지역은 폭염 관련 특보, 강원·충남·인천 지역은 태풍 관련 특보로 인한 익수사고가 많은 것으로 분석
- 소방청은 소방활동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기별 수난사고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구조 대책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출처 : 소방청 보도자료(2024.08.07.) 소방청 “토·일요일 오후 3시, 익수사고 주의하세요!”



## 무보, 481만개 국외기업 빅데이터로 국내기업 수출 돕는다

-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지난 3년간 국외 기업 빅데이터를 분석한 ‘국외기업 경영분석 보고서’를 ‘K-SURE 해외신용정보센터’에 공개, 국내 기업의 수출 의사결정 지원
  - 보고서는 지난 2020~2022년 간 국외 기업의 재무 정보를 활용해 국가별, 기업 규모별, 업종별로 국외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매출액 순이익률 등의 재무 비율 추이를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음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신용정보센터 홈페이지>

- 무보는 “2022년 중국 종합건설업 부채 비율은 340%로, ①글로벌 종합건설업 부채 비율 236%와 중국 기업 평균 부채 비율 151%를 크게 상회하고 ②지년해 중국 건설기업 비구이위안의 채무불이행 사태 등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한 점을 보았을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분석

- 무보는 양질의 신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신용 정보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
  - 국내 기업과 우량 해외 바이어 매칭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해외 바이어 정보 검색 시스템’에 신용등급 등을 추가 제공하고 HS코드 기반 검색 기능 도입

출처 : 연합뉴스(2024.08.06.) 무보, 481만개 국외기업 빅데이터로 국내기업 수출 돕는다



## 국립공원공단, 통계 정보 분석을 통한 사전예방 안전관리 추진

- 국립공원공단은 산행 3대 사망사고(심장돌연사, 추락사, 익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사고 데이터 기반 AI 분석을 활용한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를 추진
  - 지난 2014~2023년 간 국립공원에서 총 16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심장돌연사 84건(50%), 추락사 54건(32%), 익사 15건(9%)로 3대 사망사고 비중이 91%를 차지

<탐방객 안전사고 현황(단위:명)>

구 분	합계	사 망						
		소계	추락사	동사	익사	심장 돌연사	자연 재해	기타
계	1,590	167	54	3	15	84	0	11
'14년	237	36	10	2	3	19	0	2
'15년	137	22	6	0	1	11	0	4
'16년	193	14	4	1	0	9	0	0
'17년	179	18	3	0	1	11	0	3
'18년	180	16	2	0	4	9	0	1
'19년	160	13	7	0	0	6	0	0
'20년	129	12	6	0	0	5	0	1
'21년	125	10	6	0	0	4	0	0
'22년	131	16	7	0	3	6	0	0
'23년	119	10	3	0	3	4	0	0

※ 기타: 낙뢰, 저체온증, 낙석 등

- 사고원인에 따른 안전사고 통계정보와 기상청 자료, 위성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발생지점의 지리적·환경적 특성 등을 분석해 기존 사고 발생지역 외에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구간 130곳을 발견
- 국립공원공단은 데이터를 활용한 사고 발생지점 예측분석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 사업을 추진하는 등 탐방객 안전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밝힘
  -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쉼터 및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축 △위험 안내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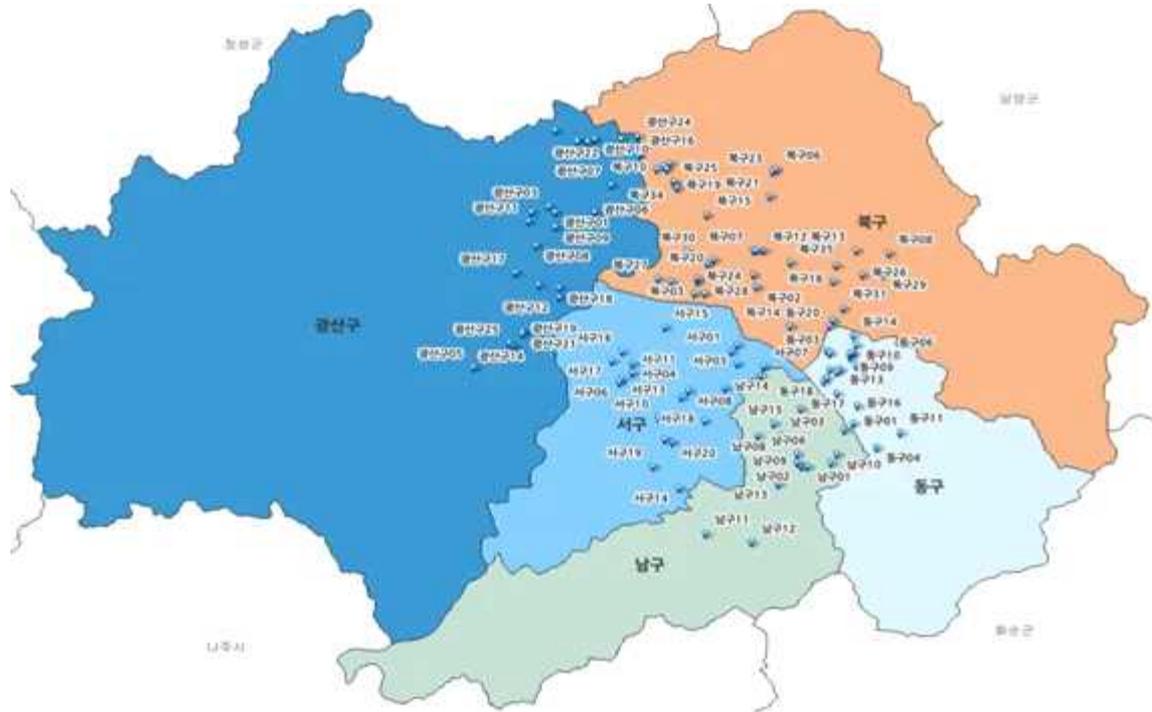
빅  
데  
이  
터



## 광주시, 데이터 분석으로 그늘막 우선 설치 지역 선정

-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는 지표면 온도와 폭염취약계층 거주, 유동인구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폭염 대비 그늘막 우선 설치 지역 105곳을 선정, 현장 방문 후 최종 선정할 예정
  - 기존에는 자치구가 다중이용장소 위치, 그늘막 설치요구 민원, 현장 여건 등을 바탕으로 위치를 결정해 그늘막을 설치하였으나,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지역별 열분포도'와 그늘막 설치 현황, 신호기·횡단보도 설치 현황, 지역별 폭염 취약계층(어린이·노인) 거주 및 유동인구 현황 등을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늘막 설치 최적 입지를 도출
  - 각 자치구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한 후 행정안전부 그늘막 설치·관리지침에 따라 설치 지역을 최종 선정할 방침

<광주시 그늘막 우선 설치 필요 지역 분포 현황>



- 광주시 관계자는 그늘막 설치입지 데이터 분석이 폭염 취약계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시민체감형 데이터 분석을 지속 수행해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힘

출처 : 경향신문(2024.08.18.) "데이터 분석으로 폭염 취약계층 지키다"...광주시, 그늘막 우선 설치 105곳 도출



## 건강진단에 운동·식단 제시...서울시, '손목닥터 9988'에 AI 입힌다

- 서울시 건강관리 서비스인 '손목닥터 9988' 앱에서 빅데이터 및 AI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삼성전자·넛지헬스케어와 서비스 고도화 업무협약 체결
  - 손목닥터 9988은 시민의 건강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2021년 시작한 서울시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으로, 스마트폰 앱이나 스마트 워치로 걸음 수를 측정해 서울페이\*로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
    - \* 병원,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
  - 서울시는 국내 최대 걷기 앱 '캐시워크' 개발사인 넛지헬스케어와 함께 손목닥터 9988 앱을 고도화, 리뉴얼 버전을 오는 9월 선보일 예정
  - 리뉴얼 버전에서는 시민 120만 명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용자의 신체 상태와 운동량 등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대사증후군 검사 결과나 마음 건강 검사 결과를 앱으로 제공
  - 또 삼성전자의 신형 피트니스 밴드 '갤럭시 핏3' 5만 개를 노인이나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 계층과 신규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가로 공급

<손목닥터 9988 관련 공동협력 업무협약 기념촬영>



-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경쟁력있는 기업 및 기관과 협력해 손목닥터 9988을 한층 강화된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하고 국내외에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모델을 확산할 계획

출처 : 서울경제(2024.07.23.) 건강진단에 운동·식단 제시...서울시, '손목닥터 9988'에 AI 입힌다



## “전방 150m 야생동물 출현” ...빅데이터·기술로 로드킬 막는다

- 포스코DX가 환경부와 협력해 영상 인식 등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로 동물 찾길 사고, 일명 ‘로드킬 예방’을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 업무협약을 체결
- 포스코DX가 개발한 ‘동물 찾길 사고 예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야생동물의 종류·출현 시간 등 빅데이터로 출몰 가능성을 예측해 알려주고 스마트 폐쇄회로(CC)TV로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을 영상 인식 시로 판독 분석한 뒤 해당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들에게 전광판으로 알려줌

<‘동물 찾길 사고 예방 모니터링 시스템’의 고라니 감지, 구성도>



- 포스코는 지난해 한려해상국립공원 남해 상주·금산 지구에 시스템을 시범 구축한 것에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오대산 국립공원 진고개 부근과 경기 양평 일반국도 6호선 일대에 추가 구축하였고, 이후 환경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협력해 단계별로 설치를 확대할 예정
- 시범 운영 지역에 오소리 고라니 등 야생동물 출현이 163건 있었지만 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해당 구간을 지나는 차량 속도도 평균 35% 이상 감속하는 효과를 보임
- 포스코DX측은 도로에서 희생되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지원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출처 : 경향신문(2024.07.26) “전방 150m 야생동물 출현”...인공지능 기술로 로드킬 막는다



## LIG넥스원, 美 팔란티어와 MOU...“빅데이터 기반 무기체계 개발”

- LIG넥스원이 미국의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이하 팔란티어)와 협력해 ‘미래 무기체계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 이번 협약에서 LIG넥스원은 △정찰용 무인수상정 △초소형 영상 레이더(SAR) 위성 △기뢰 제거 △전자기스펙트럼 작전(EMSO) 개발 과정에 팔란티어의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적용하기로 함

<LIG넥스원-美팔란티어, ‘미래 무기체계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MOU’ 체결식>



- LIG넥스원은 해상 무인화 플랫폼 ‘해검’(무인수상정)을 비롯해 무인체계, 우주, 전자전 등의 체계 종합 분야에서 기술력을 쌓아왔으며
- 팔란티어의 데이터 인프라 기술과 AI 솔루션은 다수 사업을 통해 검증된 바가 있음
- 현재 무기체계는 유무인복합체계(MUM-T)를 중심으로 초지능·초연결·초융합에 기반해 빠르게 첨단화·고도화되고 있어 국방 분야에 있어서 데이터 관리 역량의 중요성이 대두
- LIG넥스원은 팔란티어의 플랫폼과 AI 알고리즘 기술이 대규모 데이터의 통합·관리·분석에 특화되어 있어 소프트웨어 비중이 높은 미래 무기체계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LIG넥스원은 팔란티어와의 협력을 통해 미래전장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여 전장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함께 주도할 계획

출처 : 연합뉴스(2024.08.08.) LIG넥스원, 美팔란티어와 MOU...“빅데이터 기반 무기체계 개발”  
한스경제(2024.08.08.) LIG넥스원, 美 AI데이터 분석기업과 맞손...무기체계 빅데이터 활용